6개월 단기예금 쏟아내는 저축은행… PF 부실 시그널 우려

1년물 정기예금 금리 경쟁 심화
6개월도 등장, 2·3년물은 매력 뚝
단기예금으로 수신해 자금 조달
지방·소규모 부실 위험 우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저축은행의 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년물 정기예금 금리 경쟁이 6개월짜리 단기 예금으로 옮겨간 탓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정기예금(6개월)의 평균 금리는 3.82%를 기록했다. 9월 말을 시작으로 한 달 새 무려 1.47%포인트(p) 상승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2년물 정기예금의 경우 1.22%p 상승했고, 3년물은 1.09%p 올랐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1년물 정기예금(1.54%p)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PF에 돈줄이 막히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PF 부실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6개월짜리 예금 상품 등 단기로 자금을 수신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1년물 예금의 금리를 인상해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위 5곳 저축은행(OK·SBI·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금액은 2조80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6% 상승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관련 대출에 손을 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과 함께 저축은행의 1년물 예금 경쟁이 과열되자 6개월짜리 단기 예금으로 여파가 옮겨간 것 또한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자금 운용이 어렵다. 예·적금을 통해 자금의 대부분을 수신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단기로 조달할수록 유동성이 떨어져 대출 등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사업을 펼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상환 리스크도 존재해 단기 자금 조달은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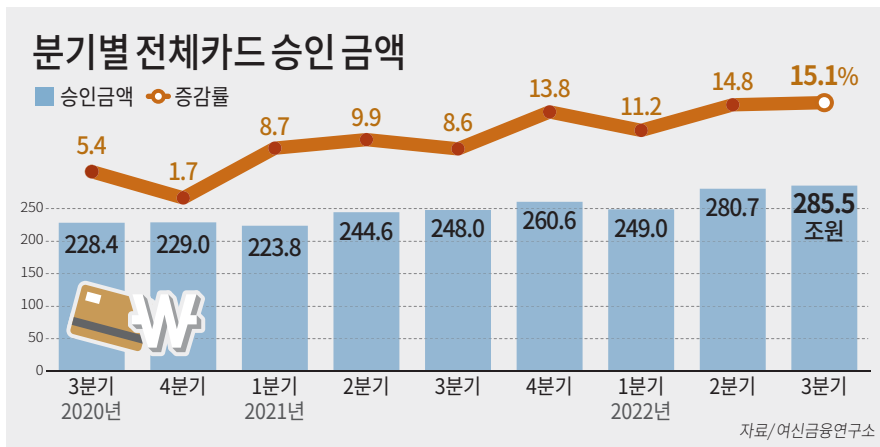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는 것 또한 문제로 떠오른다. 통상 예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자금을 묶어 놓을수록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이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물 예금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2~3년물 예·적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예금의 경우 적금에 비해 자금에 대한 구속력도 떨어진다.

실제로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정기예금 중 6개월짜리 예금이 1년물 예금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상위 10개 중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실무자는 "당장 상위 저축은행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저축은행은 부실 위험이 커지거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6~12개월짜리 단기 예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은 2~3년물 예금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3분기 카드 작년보다 많이, 자주 긁었다

카드 승인액 15.1%, 건수 11.6%⬆
숙박업·음식점업 등 내수 매출 증가
운수업, 기저효과 등에 87.5% 상승



올 3분기 카드승인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카드승인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와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내수 매출이 올랐다. 아울러 하늘길 개방에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의 실적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32조3000억원이며 승인건수는 63억8000만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6%, 11.6% 상승했다. 이어 법인카드의 경우 승인금액이 53조3000억원이며 승인건수 3억9000만건으로 각각 지난해 3분기 대비 22.0%, 11.0% 증가했다.

여신협회는 3분기 법인카드 사용량 증가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 및 고용 회복에 따라 각종 사업자 부담과 세금 납부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회식, 여행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이어 운수업은 여행·이동 증가 및 지난해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용 감소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87.5% 상승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여행사 등 관련 산업의 매출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올랐다.

반면 상승한 승인실적 대비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는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216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6% 감소했다.

/김정산 기자

우리銀, 하반기 신입 행원 세자릿수 채용

일반직·지역인재·IT특성화고 부문

우리은행은 미래 금융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채용에서도 세자리 수 신입행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오는 1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일반직 ▲지역인재 ▲IT특성화고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반직과 지역인재 부문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전형 ▲AI역량검사·최종 면접전형 절차로 이루어져 총 3번의 면접전형을 거치게 된다. 특히 금융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교육생을 우대한다.

IT특성화고 부문의 경우 잠재력 있는 고졸 인재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부 추천자, IT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할 계획이며 입행 후 디지털·IT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어려운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번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인재들을 우대해 채용할 예정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DGB대구은행
바이오인증 경품 이벤트

DGB대구은행은 'DGB 바이오인증 공항 연계 서비스' 등록고객을 대상으로 방콕, 제주 왕복항공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는 '비행기 타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DGB 바이오인증 공항 연계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서 바이오(손바닥정맥)정보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국내선 탑승수속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DGB 바이오인증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이면 누구나 자동 응모된다. /구남영 기자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첫 달 이자 지원'

중신용대출 등 신규 실행 대상

카카오뱅크가 11월 한 달간 중저신용 고객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을 신규로 실행한 중저신용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첫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 오뱅크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점수가 850점(KCB 기준) 이하인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장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각각 1억원, 5000만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5.82%, 최저 연 7.87%이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소득과 무관하게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약정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상품이다. 최대 한도는 300만원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의 최저금리는 연7.86%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대규모 위기… 안정조치 마련을"

〉〉1면 '7% 초고금리'서 계속

전문가들은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시장안정조치가 빠르게 이뤄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께 금리가 정점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내년에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두어 차례 올 수 있다"며 "그때도 이번과 같은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실행해야 할 텐데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금리를 올려 건전한 기업이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역시 위기가 온다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올 수 있다"며 "민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승용 기자